

“국어 A형 쉽고 B형 어려워 난도 차이”

■ 수능 6월 모의고사 반응
영·수 평이한 출제 ‘쉬웠다’
과목별 학습계획 자료 활용
입시전략 기준으로 삼아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영역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반응했다. 영어는 ‘쉬운 수능 영어 출제’라는 교육부 방침대로 쉽게 나와 변별력이 없을 정도였고, 수학 역시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형수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고려고 진학부장)는 “너무 쉬워 평가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물수능” 수준, 아주 쉬웠다 =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 실제 수능 문제 출제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작년과 같이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어 수준별 시험으로 진행됐고, 영어 영역은 A/B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됐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을 전 영역에서 70% 수준으로 출제됐다. ▲국어 A형 71.1% B형 71.1% ▲수학 A/B 모두 70.0% ▲영어 71.1% ▲사회탐구 10과목 70.0% ▲과학탐구 8과목 70.0% ▲제2외국어/한문 등 9과목 70.0%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고교 3학년 교사들은 국어 영역에서 A형은 작년보다 약간 쉽거나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4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광주 남구 진월동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비슷한 수준이었고, B형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더 어려운 수준으로 A/B형간 난도 차이가 난 것으로 평가됐다.

수학 영역은 A형과 B형 모두 2014학년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고, 지난해 신유형 문항이었던 세트형 문항이 A형에 출제됐으나 B형에는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통합형으로 출제된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었던 지난해 수능의 B형보다는 쉬웠고 A형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한철민 송덕고 수학교사는 “전반적으로 A/B형 관계없이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A형에서 21번 삼차함수식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30번은 개수를 셀 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며

“수학B형에서 28번은 그림으로는 쉽게 풀리지만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수적 접근보다는 직관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입시전략 세울 기준 = 6월 모의평가는 과목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앞으로 학습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

다. 또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파악해서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확인하고, 수시에서 무슨 전형으로 응시할 것인지 입시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금희 전남외국어고 영어교사는 “너무 평이하게 출제돼 변별력이 없었다”며 “9월 모의평가 또는 실제 수능에서는 변별력 유지할 수 있는 문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광주 2만1991명, 전남 1만7733명 등 전국에서 62만8194명이 응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피해자 휴대전화·동영상·문자메시지 증거 활용

공익법률지원단, 가족들과 협의 재판과정 자료 제출 계획

광주지법 해남지원, 진도 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결정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동영상·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돼 활용될 전망이다.

검찰이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을 감안, 가족들 조사에 신중히 접근한다. 세월호 선원 등 침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광주지방변호사회 공익법률지원단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 가족

들과 협의, 희생자들이 사고 당시 보유했던 휴대전화를 모아 동영상·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선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상황 등이 담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해자 가족 등의 판단이다.

피고인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상당수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고 검찰의 입증 계획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기록이 주요한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익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검찰이 사고 당시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인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반면, 참사로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보유한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널 것”이라고 말했다.

특유는 아울러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여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

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이에 이뤄진 교신 자료, 로그인 기록에 대해 검증과 서증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진도VTS에서 해당 자료들을 복사·열람토록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이 제주지법에 한 증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져 제주 VTS가 보유한 사고 당시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는 13일 오후 1시 이뤄질 예정이며 사고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한 해경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이뤄져 인천지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2명 사망 292명
 ※ 세월호 참사 58일째
 12일 오후 8시 현재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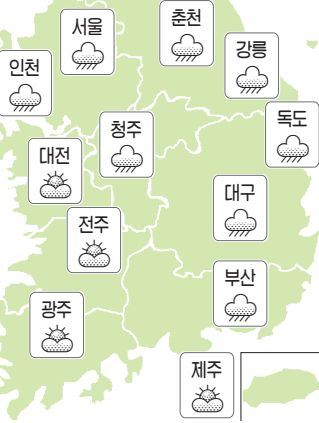
해돋이 05:17 해질 19:47
 해짐 19:48 달짐 05:18

미세먼지 '보통'

구름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7/27	보성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17/29	순천	구름많음	18/28
여수	구름많음	18/26	영광	구름많음	17/26
나주	구름많음	16/28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구름많음	17/26	전주	구름많음	17/26
구례	비	16/28	군산	구름많음	16/24
강진	구름많음	16/26	남원	구름많음	16/26
해남	구름많음	16/26	속산도	구름많음	17/23
장성	구름많음	16/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1.0~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40
빨래	6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07	07:28
		14:08	19:30
여수		08:56	02:59
		21:38	14:54

◇주간 날씨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	☀	☀	☀	☀	☀	☀
18/29	18/29	18/28	19/28	19/29	19/30	19/29

광주지역 잦은 기습 폭우·돌풍 왜?

대기 상층-하층 큰 온도차 와류 발생 공장 지붕 날아가고 곳곳 침수 피해도

광주에서 12일 오후 한때 기습 폭우와 함께 돌풍이 불어 공장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며칠 새 광주에서 잦은 기습 폭우와 함께 돌풍도 자주 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돌풍 피해-공장 지붕 파손 = 12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 C 물류센터 사무실에 13.9m/s 이상의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었다. 이 회오리바람으로 인해 C물류센터 330㎡ 면적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순간 최대풍속이 13.9m/s 이상일 때 돌풍으로 규정하는데, 이 정도 위력은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바람을 향해 걷기 힘들 정도다. 또 이날 오후 1시44분부터 오후 3시19분까지 95분간 광주지역에 24.5mm의 기습 폭우가 내렸다. 북구 문봉동 지하차도 및 서구 농성동 지하차도 등 곳곳이 한때 침수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17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기습폭우 및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28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습폭우·돌풍 왜 = 요즘 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밀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열하는 태양열로 인해 지표면이 가까운 공기가 상승, 12km 상공에 있는 찬 공기를 만나 강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고 있다.

무등산과 용진산 등 고지대에서는 구름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하강, 비구름을 생성하는 ‘산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나기는 열대지방의 ‘스콜’ 원리와 비슷하지만, 주기성(週期性)을 띠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C물류센터에서 회오리바람이 발생한 이유는 상층부의 찬 공기와 하층부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일종의 와류(渦流)가 발생한 때문.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바람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용돌이처럼 되는 원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전문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 약오리
- 오리구이
-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필드를 연습케하는
 쾌적한 연습장!!

- 퍼터, 어프러치 잔디 연습장원비
- 60타석으로 휴게실, 샤워장 원비
-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연습 가능

목포시 연산동 614-194
목포골프클럽·호남미니골프장
 T(061)273-0087 F(061)279-5517